

#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그대로 그대로 돌아갈 뿐...

## 21면에서 계속

다. 그러나 앉았을 때는 앉아서 생각하고 설 때는 서서 생각하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생각하고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없으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닥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 배낭 속이다 다시 맡겨 놔야만 과거에 입력했던 것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액난을 어떻게 소화하고 나갈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줄 모르고, 거기서 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경케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죽도록 매를 맞게 하고, 딴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하고 이 별의별 우환이 다 드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못 합니다. 이거.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 액난이 다 나오는 거니까, 액난을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그 자리밖에 없다.' 하고 놓는 것이 '나를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믿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主人)!' 한마음 주인공!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해주세요'가 어딴 겁니까? 물이 아닌데, 유심(有心)과 무심(無心)이 어떻게 들어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들어 됩니까? 그러니까 '해주세요'가 아니라 틀림없이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는 겁니다.

이심전심으로써 수없이 통하고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저쪽 마음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것도,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증생들을 바로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이 업보성을 전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보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보살로 만들지 못하면 증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무심(無心)의 증용,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데나 100%를 작용하면서 끌리는 것이 증용이예요.

그러니까 이쯤 해두고 여러분이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 질문자1(男):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제 안으로도, 그리고 밖으로도 늘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그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윤회한다는 그것을 유전자를 통해서 후세에게 계속 자기를 복제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육신은 본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다시 본래 주인공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그

러신다면 그 업식으로 뭉쳐서 윤회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신 그 배낭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배낭 속에서 나온 업식이 모양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 스님: 물론 그 배낭 속에 생명, 의식, 모습 다 있습니다. 이전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의식 자체는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체가 없듯이 모두가 내 마음이 하는 대로 행을 따라줍니다. 이 인과의 업식은 잘되고 잘못되고를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따라서 움직여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회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윤회하는 거를 못 느낍니까? 사계절이 돌아오는 것도 윤회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이것도 윤회입니다. 또 저런 별성도 이 거죽만 벗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이한테 어떻게 윤회가 아니라 그런 겁니까? 윤회라는 건 이름이지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만 하고 죽어서 그냥 없어진다면 지속되는 끈 끈 데 없는 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 질문자1(男): 스님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윤회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 스님: 그럼 말입니다. 맥의 이름을 몇 개를 가졌죠? 몇 개를 가졌습니까? 이름?

▶ 질문자1(男): 그냥 저죠.

▶ 스님: 형님이라는 이름도 가졌죠? 동생이라는 이름도 가졌죠?

▶ 질문자1(男): 예, 물론입니다.

▶ 스님: 자식이라는 이름도 가졌겠죠. 사위라

참으로 제 소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스님: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평생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면 얽매고 일면 벗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진리 속에서, 말하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자꾸자꾸 바뀌어서 돌아가는데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뭐가 그렇게 의의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신계의 무심도(無心道)를 이렇게 생활로써 엮어나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니, 지금 정신이 빠져 있으면 무효야! 하하하. 그런데 그 정신이 있기

하는 겁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당신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바깥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넘고 뛰어넘고 하는 교차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릴 수 있다면 죽을 거고, 내쉬고 들이쉬 수 있다면 살 겁니다. 그 양면이 교차하는 그런 틈에서 그냥 그대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바로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그놈밖에 없잖아? 그리고 모든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게 아닌가? 자기가 없다면 들이고 낼 건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릴 수 없다면 이 공부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이 배낭이라는, 종이라는, 집이라는 육신에 50%가 달려있다 이 소리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나?

▶ 질문자2(男):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님께서는 배낭에서 나오는 문제를 관하라고 말씀하시는 데 실제로는 관할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전혀 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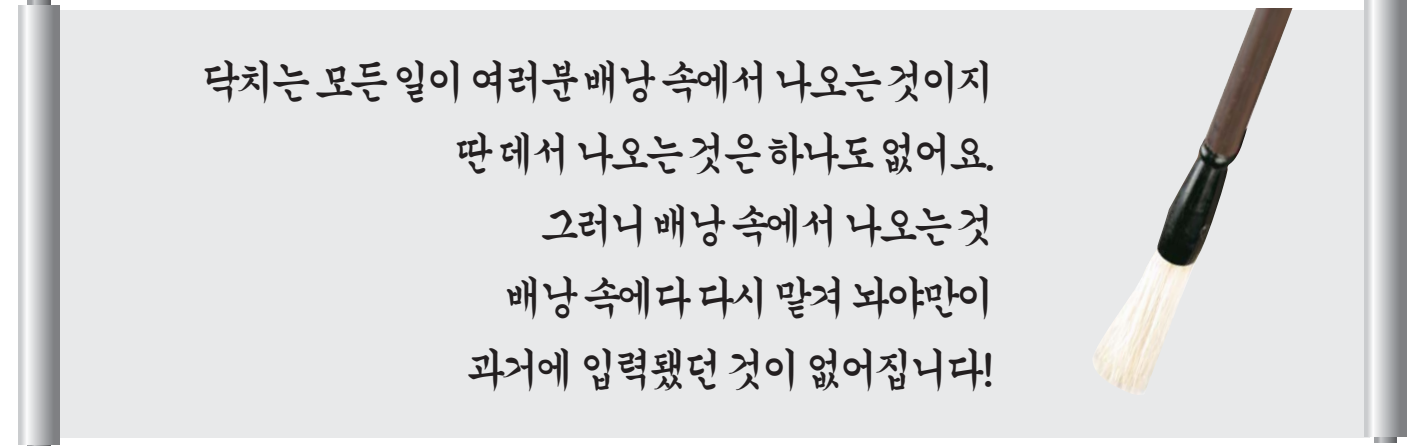
▶ 스님: 허허. 관하지 않으나 관하나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 허허허.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고, 자기가 관을 안 하든 하든 돌아가고 있어. 그냥 안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하는 것도 그 자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여여함이야. 안 한다 끊어졌다 하는 생각은 자기의 관념적인 생각이거나 포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쉬어 가 소리야,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얘기를 안 하고 그거를 끊어뜨리고 있다 하는 것도 자기 관념의 생각이 지 끊어지긴 뭐가 끊어져, 허허, 시공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 질문자2(男): 그럼 정말 쉬라는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 스님: 하하하. 아, 끊어진 것도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오 거기서야. 이게 이런 게 있어. 24시간이라는 건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이 24시간이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다 저녁에 생각해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냥 붙어버려. 그 공간이 그냥 없어져 버려. 이렇게 묘한 법이야. 이래도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놓은 관념적인 생각이거나 이거야, 하루 종일 내가 끊어뜨렸다 하는 생각이.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10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미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닥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 배낭 속에다 다시 맡겨 놔야만 과거에 입력했던 것이 없어집니다!

습니다. 은하계에서 별성들의 마음이 태양계를 만들었다 합니다. 그럼 만들었으면 이 옷만 벗지 영혼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가 부합되면 다시 옷을 입고 생산이 됩니다. 인간도 영혼이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있다고, 과거의 업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조금도 예누리 없이 자기한테 자기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몸을 받아서 또 나오죠.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있다 해서 어린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거기 한데 합쳐져야, 삼합이 합쳐져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올라가서 비로 내립니다. 비로 내리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생명체들이 다 그걸 먹고 삽니다. 살아나가는 데도 수없이 돌고 도는 겁니다. 옛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물이 되고, 독의 피가 되고, 약초가 먹으면 바로 약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물을 먹고 땀을 흘리고 죽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물로 돌아가서 도랑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에서

는 이름도 가졌고요, 남편이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그런데 순간순간 남편이 될 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의 말을 하고 남편의 행동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또 '아버지!' 하고 으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또 '애, 아무개야!' 부르면 자동적으로 아들의 노릇을 하고 아들 말을 하고 아들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 질문자1(男): 제가 지금 살아있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 또는 생각하고 제 본래 주인공 마음이다가 입력하고 다시 내놓고 그러는 것은 지금 제가 살아있기 때문인데 그걸 과거에서 이어져 오고 미래에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하고 같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게 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많이 끼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연대로 뭉쳐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때문에 그렇게 참나 참나 돌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 여러분의 법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 아, 윤회라고 말할 건데 뭐 있나? 고정됨이 없이 공(空)해서 그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 질문자2(男): 스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은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하나이고 주인공에다가 몰락 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관찰해보면 '예전부터 믿어왔던 나'가 아니라 참나 또는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느낄 수 있는 자마는 주인공을 찾을 때 스님께서는 관(觀)하라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주인공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관을 할 수 있는지 그 관하는 관법(觀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님: 여태 얘기했는데도, 허허허. (대중 웃음) 듣는다면 어쩌해. 관법은 누우나 앉으나, 내가 좀 앉아서 참구해보겠다 하고 앉았으면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2007년도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장기이식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세미나

###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

(사)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며 장기기증을 바라보는 각 종교의 태도와 종교인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생명나눔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일시 : 2007년 10월 19일(금) 오후 1시 30분
-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별관 2층 좌장 : 박광서(서강대학교 교수)

#### 주제발표 14:15~15:55

1. 종교인의 뇌사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 이상목 교수(동아대학교)
2. 종교가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과 참여도 - 박진탁 목사(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3. 한국인의 심성과 관습이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김영재 교수(경희대학교)

#### 종합토의 및 질문 16:05~17:40

박정우 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성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수석 부이사장)  
방인성 목사(성서교회 담임목사)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TEL. (02)734-8050 FAX. (02)734-8052  
생명나눔실천본부 www.lisa.or.kr | lisa@lisa.or.kr

## 사찰 법당 음향설비

### DX-707 스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로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DX-707 스탠드 마이크  
▶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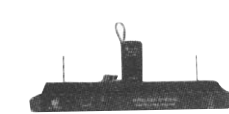
▶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전용 스피커



▶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 高音質 무선마이크



▶ 가격 :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호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원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